

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⁶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3:6)

창세기 3장은 크게 세 부분, 곧 1절로 13절, 14절로 19절, 그리고 마지막 20절로 24절까지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선악과 본문으로 그 첫 번째 마디 안에 있는,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인 선악과를 따 먹는 바로 그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선악과로 알고 있는, 바로 오늘 제목처럼 여자가 본 나무 그 자체에 대한 것보다, 여자는 왜 나무를 그런 시각으로 보았을까? 그 나무는 여자의 눈에 왜 그런 모습, 곧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비쳤을까? 하는, 다소 좀 색다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

제 설교가 항상 그렇듯 오늘도 저는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배경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다들 익숙하신 걸듯, 곧 겉 글자의 뜻이 아닌 속뜻, 곧 아케이나로 읽기 때문이며, 그래서 배경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겉뜻으로 읽는다는 건 기록된 글자의 뜻 그대로 읽는다는 겁니다. 가령 오늘 본문도

여자가 범상치 않은 나무를 본 후 그 열매를 따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었다.

기록된 글자 그대로 과거에 실제 이대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읽는다는 말입니다.

반면, 속뜻으로 읽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을 예로 들면,

네 번째 후손, 곧 선대와 달리 사랑할 정도로 자아를 원했고, 그 결과 감각과 세상에서 배운 걸로 이해가 안 되면 비록 주님의 신성한 계시라 하더라도 완강하게 거부하던 이들 네 번째 후손에 이르자

창3:6, AC.207-210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든 걸 거꾸로 보기 시작, 주님의 것들, 곧 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모든 주님 신앙과 그 거룩한 교리들을 탐욕과 환상, 쾌락의 대상으로 보았고, 거기에 이들의 합리적 이성조차 동조함으로써 그만 선을 넘게 되었다.

제가 약간의 배경을 곁들이느라 좀 길어졌는데요, 배경 설명을 건너내고 본문만 다시 기술하면

네 번째 후손의 자아는 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모든 주님 신앙과 그 거룩한 교리들을 탐욕과 환상, 쾌락의 대상으로 보았고, 거기에 이들의 합리적 이성조차 동조함으로써 그만 선을 넘게 되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읽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여자’는 네 번째 후손의 자아(自我, 본성, *proprium, own, selfhood*)를, ‘나무’는 퍼셉션(*perception*, 주님이 태고교회에게 주신 영적 통찰력)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은 탐욕과 환상, 쾌락을, ‘그 열매를 따 먹고’는 주님 주신 퍼셉션으로 선대로부터 잘 정돈

되어 전해져 내려오던 모든 주님 신앙과 그 거룩한 교리들, 계시들을, 이게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후손, 후대의 자아 사랑, 세상 사랑의 결과, 자신들의 감각과 세상 걸 가지고 이해하려는 일체의 시도, 즉 천국을 비롯, 모든 주님의 것을 세상, 세속 지식으로 들여다보려는 일체의 시도를, 이게 ‘따 먹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는 사람의 자아 말고 또 다른, 주님이 사람 안에 두신 합리적 기능인 이성마저 그만 이 흐름에 동조하고 말았음을 각각 뜻하기 때문입니다.

스베덴보리에 의하면, 실제 천국 천사들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고 있으며, 주님 친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자신에게 풀어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속뜻 읽기 이야기체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전까지 계속됩니다. 실제 역사는 아브라함부터이며, 저는 이런 걸 스베덴보리의 창세기, 출애굽기 주석인 ‘아케이나 코엘레스티아’를 접하고 알았습니다. 저는 이 주석을 3년째 번역하고 있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체계는 이 모든 것이 잘 맞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등을 점점 더 밝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

속사람의 변화, 아주 근원적인 변화, 주님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주님의 것을 세상 지식으로 연구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말하며, 그래서 주님은 이를 금하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이런 시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하늘 문이 닫히며, 천국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았던 모든 지혜와 지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에게는 일차적으로 자연적 선만 남게 되며, 그마저도 곧 '발가벗겨'지게 되는데, 이런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반드시 죽으리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상태는 거의 지옥과 같은 상태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저런 시도를 하는 이유는,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며, 주님의 계시보다 자기가 습득한 세상 학문과 지식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주님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며, 그것을 '뱀'의 말, 곧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

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뱀은 저런 일체의 시도 및 그 시도를 실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절대 저런 '뱀'의 자리에 서서는, 더 나아가 귀조차 기울여서는 안 되고, 대신 그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주님 말씀을 순진무구하게 따르는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될 필요도, 절대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에 비추어 '예', '아니오'만 하면 됩니다.

태고교회 이야기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사는 이 지구에 인류를 시작하셨을 때를 태고(太古, *The Most Ancient*)라 하며, 이때부터 대홍수(大洪水) 전까지를 태고교회(*The Most Ancient Church*)라 합니다. 홍수 후부터는 고대교회(古代, *The Ancient Church*), 유대교회 및 현 기독교회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후엔 주님의 새 교회(*The New Church*)가 시작됩니다.

창3:6, AC.207-210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지구의 나이는 지질학적으로 45, 6억 년이라고 하는데, 창세기를 겹뜻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이 지질학적 연대를 도저히 못 받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가지고 대략적 산술 계산만 해도 6천 년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요. 창세기를 겹뜻으로 읽게 되면 이런 결과는 필연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세기 11장까지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들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닌, 한 시대를 풍미(?)한 신앙의 이름들, 교리의 이름들, 교회의 이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아담’하면 아담(사람)으로 불렸던 천적 교회(天的, *The Celestial Church*)를, ‘아벨’하면 거기서 나온, 사랑과 신앙의 일치를 추구했던 교회를, ‘가인’하면 역시 거기서 나온, 사랑 따로, 신앙 따로를 추구하다가 나중엔 신앙을 우선시했던, 그래서 첫 번째 이단으로 자리매김한 교회를 각각 가리키는 그런 것이지요.

또한 누가 몇 세를 살고 죽었다 할 때 그 숫자 역시 겹뜻이 아닌 속뜻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 가령, 므두셀라가 구백육십구 세를 살았다 할 때, 이 969라는 숫자는 실제 969년이라는 의미가 아닌, 전혀

다른 어떤 엄청난 기간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말씀에는 숫자 3, 7, 10, 12, 40, 144 등의 특정 숫자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들 숫자의 의미는 그 속뜻으로는 ‘완전’, ‘전부’라는 의미가 있어 천사들은 겹 숫자보다 내적 의미로 읽는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사실 태고교회가 실제 역사적으로 얼마나 존속했는지는 모릅니다. 주님은 성경, 정확히는 말씀(*The Word*)을 인간의 언어로 주실 때, 그런 다큐멘터리식 역사기록물로 주시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실제 지구 나이가 45억 년 중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홍수로 표현된 태고교회의 멸망까지는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지 등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저 장구한 세월이 흘렀으려니 합니다. 가끔 ‘오파츠’(Out-of-Place ARTifactS)라고, 고고학적으로 절대 그 시기, 그 연대기에 발견되어서는 안 되는 유물들이 실제로 그 장소에서 발견되는 걸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아, 스베덴보리가 전하는 저 견해가 맞는 것 같다.’ 생각하곤 합니다.

이런 배경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가 태고교회의 네 번째 후손들의 자아

라는 풀이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며, 그 몇 번째, 몇 번째 하는 각 후손들의 기간 역시 수백 년일지, 수천, 수만 년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태고교회 자체의 총 존속기간 역시 얼마나 장구한 세월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긴 역사를 그저 영적으로 짧게 창세기 몇 장으로 무슨 신화처럼 이야기체로 풀어 놓으신 것이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인들 역시 이런 식의 서술 스타일을 무척 즐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의 메시지, '왜 여자는 그 나무를 보고 저런 생각을 했을까?, 왜 여자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하늘의 신령한 퍼셉션을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이라는 저급하고 탁한 세속적 시야로만 보았을까? 그리고 오늘날 그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교훈을 우리는 오늘 배워야 할까?' 등을 짧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답은 '여자'에 있습니다. 벌써 언급했지만 이 '여자'는 실제 아담이라는 한 남자의 아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장구한 세월 존속했던 태고교회의 네 번째 후손의 자아를 가리킵니다.

태고교회의 시조는 천적 인간이라

하여, 주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었던, 그래서 천사들과도 이 지상에서 직접 교류할 수 있었던, 순진무구했던 교회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2장 전반부입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주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해 돌리기 시작하는 후손들이 일어나면서 그 정도에 따라 세 번째, 네 번째... 등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장 후반부가 첫 번째, 두 번째 후손 이야기이고요. 3장 1절로 5절이 세 번째 후손 이야기입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와 이 이야기들을 주욱 읽어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 곧 태고교회 사람들의 자아가 어떻게 변질되어져 갔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이며,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천진난만 순진무구했던 선조들이 봤을 때와 이들 기우는 중에 있는 네 번째 후손들이 봤을 때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그 선명한 대비가 바로 자신들의 '벌거벗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창3:6, AC.207-210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다음 절인 7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3:7)

2주 전에 미리 나눈 말씀이지요. 다시 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벌거벗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나오는 이 벌거벗음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의 선대의 이야기인 창세기 2장,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창2:25)에 나오는 벌거벗음입니다. 하나는 순진무구함이요, 다른 하나는 창피와 부끄러움, 수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모든 주님의 것을 기뻐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노센스 가운데 있으며, 그래서 이들은 모든 것이 오픈되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기들한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 주님 금하신 선악과를 범한 이들은 모든 주님의 것을 잃어버린 나머지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 벌거벗게 되며, 그 본래

모습인 악하고 거짓된 모습, 곧 새까맣고 추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벌거벗되 어느 쪽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의 것으로 가득한 사람은 벌거벗을수록 더욱 아름답습니다. 벌거벗을수록 더욱더 주님의 아름다움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취 나는 자아로 가득한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한사코 숨으려 하고, 가리려 합니다. 벌거벗어봐야 새까만 자아, 악취 나는 정말 보기 흉한 괴물 같은 자아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꼭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천사와도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입니다. 주님 금하신 나무를 범한 사람들은 하늘 문이 닫혀 더 이상 주님의 지혜, 지성, 총명 대신 어두움과 악, 모든 거짓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아도 전혀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는 탐욕(*cupidity, intense desire* 격렬한 욕망)을, ‘보암직도 하고’는 환상(*fantasy, delusion* 망상)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은 쾌락(*pleasure, sensual*

pleasure 감각적 기쁨)을 각각 의미합니다.

영적, 천적, 하늘의 기쁨을 감각적, 세속적, 물질적으로 뒤집어서 보는 것입니다. 천국은 상태의 나라요, 내적(內的, *internal*) 세계임에도 시공간 물질적 시야로만, 결과 외적(外的, *external*) 세계의 시각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매일 잔치하는 곳, 왕 같은 삶을 사는 곳, 황금 같은 보석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다 오는 많은 신참 영들의 생각이 이래서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 이들로 하여금 위의 삶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코스를 돌게 하셨습니다. 여러 달 돈 후, 이들의 결론은 '아... 너무너무 지겹다. 지옥 같다!'들 하더랍니다. 그때 천사들을 통해 가르치시는 메시지는 '천국의 기쁨은 쓰임 받는 기쁨입니다. 무슨 소유도 쓰임새를 위해,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천국은 주님의 선과 진리로 배블러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하더랍니다. 이 말에 모든 기독교인 신참 영들은 부끄러워했답니다.

저 역시 한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

다. '아, 나도 저분처럼 신령하여 성도들의 영을 투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 나도 저분처럼 안수하여 모든 불치병을 고치는 신통한 치유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나도 저분처럼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즉집게처럼 지적하여 놀래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 나도... 아, 나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이가 없고, 철부지 같아 어디 쥐구멍에라도 숨고픈 마음인데요... 제가 큰 교회 부사역자 시절 및 개척 초기엔 제가 저런 능력이 있으면 금방 소문이 나서 유명해지고, 인기 만점에 제 교회에 사람들이 밀려와 금방 큰 교회 담임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런 생각은 뭐 금방 슬쩍 지나갔고, 저역시 저런 건 가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황이 안 좋고, 안팎으로 많이 힘드니까 부지 중에 저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것이 바로 전형적인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세속적 시야입니다. 이런 시야를 불드는 사람들마다 다 망할 것입니다.

네, 어쨌든 신령한 주님의 것을 저런 세속의 것으로 접근하려는 모든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 먹는 것'이

창3:6, AC.207-210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며, 그렇게 되면 그는 타락하여 천국으로의 연결이 끊어지고, 영적 시야가 캄캄해져 영적 장님이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 정말 교묘한 옷을 입고 교활하게 우리를 혼드는 것으로 충만합니다. 정말 깨어있어야 하며, 늘 천국에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말씀 꼭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영적 고집과 근육을 붙잡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 늘 함께하시기를, 늘 생생한 영적 연결, 주님의 다함 없으신 신성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22-05-15(D1)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